

壬辰倭亂期 軍指揮官에 대한 法 適用 實態

— 李舜臣 · 元均의 錄勳을 中心으로 —

張 學 根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1. 序 論
2. 戰亂 初 敗戰 將帥에 대한 法 適用
3. 李舜臣 · 元均間 軍功論爭 推移
4. 統制使 交替와 漆川梁 敗戰에 대한 法 適用
5. 元均의 功臣策定 過程과 錄勳審査에 대한 評價
6. 結 論

1. 序 論

法이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그 利害를 조정하고 秩序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規範을 말한다. 이는 법 적용의 適否 如何에 따라 개

인의 利害와 國家秩序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임진왜란은 한국사 발전을 굴절시킨 사건이다. 또한 國難克服의 模範이 되어야 할 國王과 執權官僚들이 국난극복의 智慧나 意志를 발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勝敗를 달리했던 軍 指揮官에 대한 適法 措置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후대의 역사인물 평가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본고는 임진왜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朝廷의 法 適用實態를 살펴보고 勝將과 敗將으로 대표되는 李舜臣과 元均이 나란히 一等功臣에 책정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執權層의 道德心과 法 意識을 가름해 보려 하였다. 그것은 過去事를 再評價하려는 국민적 熱意가 부활하고 있는 시점에서 올바른 歷史 평가를 할 수 있는 智慧와 是非를 분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함이다.

2. 戰亂 初 敗戰 將帥에 대한 法 適用

初期戰爭의 對應態勢는 이후 戰局의 흐름과 國運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初戰에 敵勢를 鎮壓하는데 총력을 傾注하고 있다.

壬辰倭亂이 발발했을 때 조선군은 초전에 일본군을 제압하지 못함으로써, 전쟁이 7년이나 지속되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전국토가 焦土化되어 백성들은 戰後 復舊事業에 동원되어야 하는 또 다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초전에 朝鮮軍이 日本의 侵入을 제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接戰地域의 장수들이 戰鬥을 回避하고 軍營을 離脫했기 때문이다. 招諭使 金誠一은 전쟁초기 一線指揮官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신이 본 바로는 경상좌수사 朴湏은 화살 한 개도 쏘지 않고 먼저 성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경상좌병사 李珣은 東萊로 도망하였고, 경상우병사 曹大坤은 年老하고 겁이 많아 시중 전투를 피했으며, 경상우수사 元均은 군영을 불태우고 바다로 나가 단지 배 한 척만 보전했을 뿐이다. 병사와 수사는 한 道의 主將인데 하는 것이 이와 같았으니, 그 휘하 장수와 병졸들이 어찌 도망하여 흩어지지 않았겠는가?”¹⁾

위 기록에 따르면 바다를 건너온 일본군이 부산지역에 상륙, 그 일대에 교두보를 구축하고 破竹之勢로 북상할 수 있었던 것은 接戰地域의 방어책임자인 兵使와 水使들이 전투를 회피하고 군진을 이탈했기 때문이었다. 김성일이 지적한 접전지역의 병사와 수사들의 초기 행동과 그들에 대한 朝廷의 措置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상좌수사 박홍

1592년 4월 13일 200여 척에 분승한 1만 5,000명의 일본군이 상륙한 후 부산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임진왜란이 시작되었다.²⁾ 바다를 건너온 일본군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해상 방어임무를 맡은 자는 경상좌수사 朴泓이었다. 일본군이 부산을 공격했을 때, 박홍은 육상에 있었다. 그의 직분은 적이 해상으로 침입할 경우 즉시 휘하 군선을 이끌고 바다로 나가 적선의 육지접근을 저지하는 것이었으나, 그는 출전하지 않고 수영에 보관된 軍糧과 器械(군선과 항해기구 및 무기)를 불태운 후, 勤王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평양으로 도망쳤다.³⁾

박홍이 해상방위를 포기하고 도주함으로써 일본 침략군 제1진 1만 5,000

1) 『宣祖實錄』, 신조 25년 6월 丙辰.

2) 루이스 프로이스 저, 강병구 옮김, 『포르투갈 신부가 본 임진왜란 초기의 한국』(포르투갈 문화원), 40쪽.

3) 趙慶男, 『亂中雜錄』, 임진년 4월 16일.

명 전원이 상륙하여 부산과 동래성을 차례로 점령하게 되었으며, 그곳을 교두보 삼아 후속 增員軍과 합세한 후 한양을 향해 북상하게 했다.

전쟁이 발발한지 6개월이 지난 후, 박홍의 전투지역 이탈행위에 대해 사헌부는 “전 경상좌수사 박홍은 적이 침략한 관할 道에서 한 차례 싸우지 않고 천리 밖으로 도망했다. 그의 罪를 遡及하여 法에 따라 處斷하고, 이제 부터 敗軍한 장수는 모두 軍律대로 처리하여 法의 엄함을 보여야 한다”⁴⁾고 주장했다.

경상좌수사 박홍은 전쟁초기 軍糧과 航海器具를 유기한 채 전투지역을 이탈한 행위는 斬刑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였다.⁵⁾ 그러나 비변사는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으며, 지금은 그가 從軍하여 軍功을 세웠기 때문에 용서하여 더 큰 공을 세우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宣祖는 비변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박홍의 처벌을 면제했다.⁶⁾ 그러나 이후 전투에서 敗戰·逃走하는 장수들이 속출했으며, 전쟁이 조선 측에 불리해지자 朝廷은 의주로 파천까지 하게 되었다.

선조는 전쟁이 불리해진 것은 초기 敗軍將帥를 嚴重處罰하여 軍律을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備忘記를 통해 강력한 군법 시행을 지시했다.

“전란 중이라 당초 도망한 장수를 내가 일일이 법에 따라 처벌하지 못하자, 有司들이 그들을 처벌한 것은 白衣從軍과 같은 구차한 것에 불과했다. … 朴泓과 申翌 그리고 기타 패전한 장수 및 도망한 수령으로 그 죄상이 심한 자는 즉시 典刑을 시행하고 그 다음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니 비변사는 검토하여 보고하라.”⁷⁾

4) 『宣祖實錄』, 선조 25년 11월 辛未.

5) 『大明律』, 主將不固守 斬刑.

6) 『宣祖實錄』, 선조 25년 11월 壬申.

7) 위의 책, 선조 26년 1월 庚辰.

선조가 패전 장수로 대표되는 박홍에 대해 분명한 處罰意志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함에도 비변사는 ‘박홍이 초전에 적을 방어하지 못했지만 白衣從軍하게 하자, 그는 평양 防禦戰에 참여하여 공이 많았다’는 이유로 박홍의 처벌을 반대했다.⁸⁾

1593년 10월 22일 진주성 패전소식이 조정에 전해졌다. 패전 이유는 장수들의 전투회피 때문이었다. 패전 소식에 접한 선조는 박홍과 같이 경상도 장수들이 패전하고 평양에 와 있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한탄했다.⁹⁾ 1605년 7월 6일 박홍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조는 비망기를 통해 임진년 경상좌수사 朴泓이 도망하여 溟江(청천강)에 와 있는데 이런 일은 고금에도 없는 일이다¹⁰⁾라고 분개했다. 박홍이 처벌되지 않은 것은 당시 서인의 영수이며 좌의정 겸 도체찰사였던 尹斗壽의 비호때문이었다.¹¹⁾ 박홍은 윤두수와 그의 黨人들의 비호로 初期 敗戰과 戰鬥地域 離脫과 관련하여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2) 경상좌병사 李珣

전쟁이 발생했을 때 경상좌병사는 李珣이었다. 경상좌병영은 울산에 있었다. 일본군이 상륙해 부산을 함락한 후 동래성을 공격하려 했다. 동래부사 宋象賢은 인접 고을의 지원을 받아 일본군의 침입으로부터 동래성을 사

8) 위의 책, 선조 26년 1월 庚辰.

9) 위의 책, 선조 26년 10월 壬寅.

10) 위의 책, 선조 38년 7월 戊寅.

11) 당시 윤두수의 권력행사에 대해 『燃藜室記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공이 여러 재상과 더불어 국사를 의논할 때, 임금의 뜻을 거슬리게 될 경우 다른 재상들은 머뭇거리고 바로 말하지 못했다. 윤두수만 홀로 서리에게 붓을 잡으라하여 할 말을 다했다. 윤두수가 정승이 된 후 時事를 담당한 최홍원과 유홍 두 정승과 손잡았다. 그는 妻喪을 이유로 비변사에 나오지 않자 여러 재상이 종일 그를 기다리며 한 가지 일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성중이란 사람이 “오늘 비로소 윤두수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하려 했다. 그러나 이각은 송상현의 요청을 외면하고 부산성이 일본군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울산 兵營’을 지켜야 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동래성을 빠져나갔다.¹²⁾ 그는 울산 병영으로 달려가 먼저 병영창고에 간직되어 있던 무명 1천 필을 첩에게 주어 도망치게 한 후, 병영을 지키자고 간청하는 鎭撫를 목 베고 밤을 틈타 병영을 빠져나갔다.¹³⁾ 그는 경상좌수사 朴泓, 방어사 成應吉, 조방장 朴宗男·邊應星, 안동판관 尹安性 등 패전 장수와 함께 勤王을 구실삼아 竹嶺을 넘어 평양으로 갔지만 도원수 김명원에게 체포되어 즉결 참수되었다.¹⁴⁾

(3) 경상우병사 曹大坤

일본군이 부산과 동래를 함락한 후, 군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한 부대는 용천을 경유 金海府를 공격하고, 다른 부대는 울산을 공격했다. 당시 경상우병사는 金誠一이었다. 그러나 그는 통신부사로 일본에서 귀국해 일본 정세를 보고 때, ‘일본은 절대로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 말과 반대로 일본군이 침략하자 선조는 그를 체포해 오도록 했다.¹⁵⁾

경상우병사가 공석이 되자, 滿浦鎭 僉使로 있던 曹大坤이 尹斗壽의 추천을 받아 경상우병사로 부임했다. 그때 그의 나이는 74세 고령이었다.¹⁶⁾ 당시 경상우병영은 창원에 소재했으며, 김해부를 방어할 책임은 조대곤에게 있었다. 그는 兵營軍을 이끌고 김해로 갔으나 적의 위세에 질려 곧바로 퇴각함으로써, 金海府는 일본군에게 占領되었다.¹⁷⁾ 병사가 전투를 忌避, 退却

12) 趙慶男, 『亂中雜錄』, 4월 14일.

13) 『宣祖修整實錄』, 선조 26년 4월 庚寅.

14) 조경남, 위의 책, 임진년 5월 3일.

15) 조경남, 위의 책, 임진년 4월 22일.

16) 『宣祖實錄』, 선조 25년 5월 乙丑.

17) 위의 책, 선조 32년 7월 辛未.

함으로써 경상우병영 관할 여러 성이 일본군에게 차례로 점령되었다. 사태가 위급해지자 조정은 병사 조대곤을 면직시키고, 밀양부사朴翥을 경상우병사로 승진시켜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다. 해임된 조대곤은 고령현에 체류했다. 그는 5월 23일 휘하 군관 朴慶祿, 金應謙 등 6명이 그곳을 침입한 일본군졸 8명을 사살함으로써 그곳을 노략질하던 일본군 약탈자들을 퇴주시켰다.¹⁸⁾

김성일이 사면되어 경상도 招諭使로 발령받자 조대곤은 보직이 없는 상태로 초유사와 함께 지냈다. 사헌부는 전 경상병사 曷大坤은 적변이 발생한 곳을 지키는 장수로서 적이 오기도 전에 스스로 진을 버리고 도망쳐 김해부를 구원하지 않았다고 탄핵했다. 그러나 비변사는 조대곤이 主將으로서 체통을 잃은 것은 사실이나 김해성이 함락될 때 그는 경상병사에서 이미 해임된 상태에서 일본군 8명의 목을 벤 공적이 있기 때문에 경상우병사에 再任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¹⁹⁾ 비변사의 건의에 대해 사헌부는 兵使再任을 거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전제한 후, 그를 白衣從軍 형에 처할 것을 주장했다. 사헌부가 조대곤을 감형할 뜻을 내비치자, 비변사는 조대곤을 대신할 장수가 없다는 이유로 병사 재임명을 강하게 건의했다.²⁰⁾ 비변사와 사헌부의 논쟁이 심해지자, 선조는 밀양부사 朴翥이 鵲院江의 棧橋를 방어한 전공을 인정하여 경상우병사에 승진 발령함으로써 조대곤의 병사재임명을 차단했다.²¹⁾ 병사에서 면직된 조대곤은 양천에서 建義副將로 임명되어 서울 收復戰에 참여했다.²²⁾ 이후 그는 行護軍이란 직책을 갖고 대신들과 함께 궁궐을 출입하면서 「東宮의 軍政 專擔 反對」,²³⁾ 2품 이상 관리들과 함께 「日本과 講和 反對」,²⁴⁾와 「戰後 處理」²⁵⁾ 등 국정에 참여하는 등

18) 위의 책, 선조 25년 6월 丙辰.

19) 위의 책, 선조 25년 6월 丁巳.

20) 위의 책, 선조 25년 7월 癸亥.

21) 『宣祖修整實錄』, 선조 25년 4월 庚寅; 조경록, 『亂中雜錄』, 임진년 6월 14일.

22) 위의 책, 선조 26년 2월 壬寅, 선조 26년 3월 己未.

23) 위의 책, 선조 28년 4월 계묘.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국정에 참여하면서 천수를 다했다.

(4) 경상우수사 元均

경상우수사 원균의 초기 행적에 관한 『宣祖實錄』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경상우도 초유사 金誠一의 戰鬪狀報」

“경상우수영(거제도 가배에 위치)을 수사 元均과 우후 禹應辰이 불태웠다. 우후는 간곳을 알 수 없고, 원균은 배 한척을 타고 현재 泗川 海浦에 우거해 있는데 격군 수십 명 외에 군졸은 한명도 없다.”²⁶⁾

「경상감사 金暉의 장계」

“경상우수영의 조라포·지세포·율포·영등포 등 진은 이미 텅 비었는데 거제현령 金俊民만이 홀로 외로운 성을 지키며 죽음을 기약하고 있다. 수사 원균은 수군 대장으로서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內地로 피하면서 우후 우응신에게 官庫를 불태우게 해, 2백 년 동안 저축한 군수품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되었다.”²⁷⁾

『亂中雜錄』

“경상우수사 元均은 왜적들이 여러 성을 연달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수군 함대를 이끌고 가덕도로 향했는데, 왜적의 배가 바다를 덮고 있는 것을 보자, 마침내 퇴각했다. 그것을 본 여러 장수들도 흩어져 버렸다. 원균은 우리 군선을 다 침몰시키고 육지로 올라가 왜적을 피하려 했다. 玉浦 만호 李雲龍이 만류해 도피를 중지했다. 원균은 이운룡 등과 몇 척의 배를 타고 露梁으로 퇴각했다. 적병이 뒤따라 쫓아오자, 이운룡이 전라도 수군에

24) 위의 책, 선조 29년 1월 庚午, 선조 34년 7월 己亥.

25) 위의 책, 선조 34년 7월 己亥.

26) 『宣祖實錄』, 선조 25년 6월 丙辰.

27) 위와 같음.

게 구원을 청하기 위해 작은 배 하나를 타고 이순신에게 달려갔다.”²⁸⁾

『懲愆錄』

“처음 적병이 상륙하자 원균은 적의 형세가 큰 것을 보고 감히 나가지 못하고, 그의 戰船 백여 척과 火砲·兵器 등을 모조리 바다 속에 가라앉히고, 수하의 비장 李英男과 李雲龍 등만 데리고, 4척의 배에 나누어 태우고 달아나 昆陽 바다 어귀에 이르러서, 육지로 올라가 적군을 피하려 했다. 그래서 그가 거느린 수군 1만여 명이 모두 무너지게 되었다. 이영남이 간청하기를 ‘... 전라도에 구원병을 청해 적군과 한번 싸워 본 다음, 이기지 못하거든 그 후에 도망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함이 좋을 것입니다.’ 하자 원균도 그렇게 여겨, 이영남을 순신에게 보내 구원을 청하도록 했다.”²⁹⁾

위 4기록에 의하면, 원균은 일본군이 그의 관할해역인 경상우도 水域을 침범하기 전에 어떠한 初等措置도 취하지 않고 군선 백여 척과 각종 화포를 비롯한 航海兵器와 軍糧을 불태우거나 바다에 遺棄한 후, 휘하 장졸 몇 명만을 데리고 昆陽 해상으로 도주한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경상우수영 소속 수군 만여 명이 逃散하였고, 전략적 요충지인 巨濟島가 일본군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어, 이후 조선 수군의 해상통제를 힘겹게 만들었다. 원균의 행위는 여타 敗戰·逃走한 장수의 행위와 다를 것이 없었다. 오히려 軍船과 각종 兵器와 航海器具, 그리고 軍糧을 불태우거나 바다에 버린 행위는 잠재적 군사력마저 소멸시켜 차후 전쟁추이를 어렵게 만들기까지 했다. 원균의 이러한 非行은 경상도 초유사 金誠一과 경상감사 金晬에 의해서 조정에 알려졌지만, 조정은 원균에게 어떠한 處罰도 내리지 않았다. 그것은 원균이 도주하긴 했으나 그의 관할해역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곧바로 이순신에게 援兵을 요청하여 이순신과 함께 해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28) 조경록, 위의 책, 임진년 5월 20일.

29) 柳成龍, 『懲愆錄』 권1.

이것은 원군이 敗戰·逃走한 罪를 모면하는데 이순신의 군사력과 해전 승리가 절대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3. 李舜臣·元均間 軍功論爭 推移

원군의 救援要請을 받은 李舜臣은 관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착선 46척을 이끌고 경상도 해역으로 출전했다. 그는 원군 휘하 함대 관옥선 3척 협선 3척의 안내를 받아 옥포·합포·적진포 해상에서 적선 40여 척을 격파했다. 이후 이역기 함대가 가세함으로써 조선수군은 1592년 한 해 동안 4차 출전하여 10회 해전에서 일본군 대선 97척, 중선 59척, 소선 1척, 크기가 확인되지 않은 군선 130척을 撞破焚滅시키는 큰 승리를 이룩했다.³⁰⁾ 해전의 승리로 불리했던 전쟁국면을 호전시키는데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첫째, 의주로 파천한 朝廷이 國土恢復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둘째, 평양 이북까지 진출한 日本 地上軍에게 軍需品の 부족을 가중시켜 攻勢的 戰鬥을 守勢的 戰鬥로 전환시켰다. 셋째, 조선 전쟁에 參戰을 주저하던 明軍을 참전하게 했다. 넷째, 지상군 위주의 점령전략을 구사하던 日本軍 指揮部에게 수군을 편성케 하는 부담을 갖게 하였다. 다섯째, 일본에게 강화회담에 참여하게 했다.

조정은 수군의 해전승리의 전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해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李舜臣을 중심으로 표창했다. 즉 이순신과 원군이 합동함대를 구성하여 첫 출전에 승리한 공로로 이순신은 嘉善大夫(중2품)에 가자되었지만, 원군은 가자되지 못했다. 이후 전라우수사 이역기 함대를 포함한 삼도 합동함대를 구성하여 2·3·4차 출전에서 승리하자, 이순신은 資憲大夫(정2품)에 가자되고, 元均과 李億祺는 嘉善大夫(중2품)에 가자되었다. 이 군공

30) 『이충무공전서』, 玉浦破倭兵狀, 唐浦破倭兵狀, 見乃梁破倭兵狀, 釜山破倭兵狀 참조.

을 바탕으로 조정은 1593년 8월 15일 이순신을 3道 水軍統制使에 임명했다. 조정이 三道水軍統制使를 신설한 이유는 전쟁초기 경상우도의 수군(원균)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라좌도 수군(이순신)이 즉시 지원하지 못하고 조정에 출전허가를 받은 후 출전하는 폐단을 해소하고, 군공논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것은 이순신을 통제사로 임명하는 교서의 내용에서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회고해 보면 군을 통솔하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군을 지휘 통솔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지휘관이 서로 자기 관할지역만 방어하기를 고집한다면 팔이 손가락을 제 마음대로 움직이듯 군을 지휘할 수 있겠는가? 또한 지휘관이 각 부대를 통솔하는 권한이 없다면 어느 부대는 늦게 출전하고, 어느 부대는 앞서 도망가는 폐단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대처할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 통제사는 수사 이하가 명령을 받들지 않으면 군법대로 처리 하라.”³¹⁾

불행하게도 수군통제사가 신설되기 전에 이미 이순신과 원균 간의 군공 논쟁은 화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양자의 불화원인은 군공 서열에서 이순신에 뒤진 원균이 군공의 불공정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不和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료는 『懲毖錄』과 『宣祖實錄』의 史論이다. 『징비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전란 초 원균은 이순신과… 군공을 다투게 되어 점점 사이가 멀어졌다. 원균은 성품이 음흉하고 간사하여 중앙과 지방의 많은 인사와 연계하여 이순신을 모함하는데 있는 힘을 다했다. 그는 항상 ‘이순신이 처음 도와주려 하지 않았는데 내(원균)가 굳이 간청하여 왔으니, 싸워 이긴 공로는 내가 제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²⁾

31) 『李忠武公典書』 卷首 授三道統制使敎書.

32) 유성룡, 『懲毖錄』 권2.

“임진년에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서 전함을 거느리고 경상우수사 원균과 함께 巨濟島 앞바다에서 왜적과 싸워 이기고 왜적의 배 50여 척을 포획하여 전란 이래 제일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때에 계책을 마련하여 먼저 왜군과 싸워 이긴 것은 모두 원균 솜씨에서 나온 것이고 이순신은 다만 달려와서 구원했을 뿐이다. … 그때 行朝는 한창 다급한 때였으므로 보고를 받고 크게 기뻐하여 이순신을 통제사로 삼아 원균에게 이순신의 지휘를 받게 했다. 원균이 이 때문에 크게 화가나 드디어 서로 협조하지 않았다.”³³⁾

『懲忿錄』의 기록은 이순신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고, 『宣祖實錄』의 史論은 원균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판단 기준이 다른 것은 軍功論爭이 黨爭과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당쟁이란 어떤 사안에 대한 평가를 國家利益이나 社會道德에 준하지 않고 오직 黨利黨略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즉 이순신과 원균의 軍功논쟁이 당쟁과 연계되었다는 것은 그 是非의 基準이 國家利益이나 社會道德이 아니라 黨利黨略에 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순신과 원균이 처음 합동함대를 구성하여 출전한 것은 1592년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로, 합동함대는 옥포·합포·적진포 해전에서 승리했다. 당시 이순신 함대 세력은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이었고 원균 함대는 판옥선 3척과 협선 3척이었다. 원균 함대의 임무는 수로안내였으며, 이순신 함대가 전투임무를 맡았다.³⁴⁾ 따라서 해전승리의 주체는 이순신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해전 승리의 首功者가 원균 自身’이라는 주장이다. 즉, 원균은 비록 自衛力을 갖추지 못해 이순신의 支援을 받았지만, 海戰이 그의 管轄海域에서 행해졌으므로 자신이 首功者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균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순신의 출전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청

33) 『宣祖實錄』, 선조 36년 4월 丁未.

34) 『忠武公全書』, 玉浦破倭兵狀.

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³⁵⁾ 원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순신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순신의 亂中日記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1592년 5월 21일, 원 수사가 거짓 내용으로 공문을 돌려 부대 내에 큰 소동이 났다. 진중에서 이렇게 속이니 그 음흉하고 고약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위 기록이 1차 출전을 마친 후의 기록된 이순신의 일기 내용이라는 점과 위 선조실록의 史論 중 ‘원군이 승전 보고를 하려했을 때, 이순신이 소소한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고, 비밀리 行朝에 사람을 보내 보고했다’는 내용과 연계해 볼 때, 不和의 原因은 勝戰報告書 작성과정에서 이순신과 원군이 각자 자신이 首功者라고 주장했었음을 알 수 있다. 양자의 군공논쟁은 타협을 보지 못하고 각자 승전 보고를 하게 되었다. 특히 원군은 전투 지역의 管轄權을 내세워, 판옥선 25척을 동원해 승리의 主體가 된 이순신의 戰功을 무시하고, 판옥선 3척으로 참전한 자신을 首功者로 부각시켰던 것이다.³⁶⁾

이순신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주체는 관할권이 아니라 일본 함대를 무찌른 실질적 군사력이었다는 所信을 굽힐 수 없었다. 이순신은 군사력이 없는 원군이 관할권을 내세워 首功을 주장하자, 원군을 음험하다고 일기에 기록한 것이다.

이순신과 원군의 不和關係가 朝廷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이순신이 巨濟島 奪還戰에 실패한 직후의 일이다. 일본군이 거제도(巨濟島)를 점령하게

35) 이순신에게 원군을 요청하려 간 원군 휘하 군관의 명칭은 사료마다 다르다.

① 정미록: “원군이 이영남을 이순신에게 보냈다.”

② 연려실기술: 이운룡이 이순신에게 달려와 구원을 청했다.

③ 선조실록: 이운룡이 이순신에게 구원을 청했다.

36) 『李忠武公全書』, 제1차 옥포 승첩을 아뢰는 계본.

된 것은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하기 시작하자 원군이 거제도에 있던 慶尙右水營과 각 浦口의 防禦를 포기하고 昆陽으로 도주했기 때문이다.³⁷⁾ 거제도를 상실한 조선 수군은 한산도에 통제영을 설치하고, 건내량 협수로를 차단하여 일본함대의 西進을 저지하는 소극적 해상방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선 수군이 남해상의 해상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巨濟島 確保가 선행되어야만 했다.

거제도 탈환전은 1594년 9월 도체찰사 尹斗壽가 明軍 장수들이 철수하려 하자 우리 군이 진취적 계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시행되었다.³⁸⁾ 진취적 계책이란 조선수군이 부산 해역의 해상교통로 차단작전을 전개하기 전에 거제도를 먼저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거제도 탈환작전에 동원된 병력은 방종남, 김경로의 별초군 1,000명, 윤두수 휘하 병력 140명, 이일군 210명, 김덕령 군 680명 등 3,030명과 이순신 휘하 수군과 군선이 동원되었지만,³⁹⁾ 거제도 탈환전은 성공하지 못했다.⁴⁰⁾

거제도 상륙작전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퇴주해 온 상륙군을 급히 군선에 승선시켜 회항하려다 판옥선 1척과 사후선 3척이 좌초되었다. 그 순간 일본 쾌속선이 달려와 불덩이를 던져 조선군 100명 이상이 불에 타 죽고 병선은 모두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⁴¹⁾ 작전의 실패가 확인되자 사헌부와 사간원이 윤두수의 罷職, 도원수 권율과 통제사 이순신의 拿鞠을 주장했다. 이순신의 경우 8차에 걸쳐 兩司의 탄핵을 받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이순신의 彈劾에 사용된 資料가 모두 元均의 報告書 내용이었다.⁴²⁾

37) 趙慶男, 『亂中雜錄』, 임진년 5월 5일.

38) 『宣祖實錄』, 선조 27년 10월 乙卯.

39) 위의 책, 선조 27년 10월 丁巳.

40) 위와 같음.

41) 위의 책, 선조 27년 11월 庚辰.

42) 위의 책, 선조 27년 10월 丁巳.

“경상감사 洪履祥이 사용한 元均의 첩보 내용을 보면, 조선군은 공을 세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약세만 보여 일본군에게 업신여김을 당함이 너무 심하며, 육군과 수군을 겨우 어렵게 수합하여 한 가지 이익도 얻지 못하고 돌아옴으로써 군사들의 마음이 모두 동요

그 결과 이순신의 初期 海戰勝利의 價値가 약화된 반면, 원균이 승리의 주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 논리는 원균의 관할지역인 경상우도가 일본 수군에게 점령되었다면, 전라도(이순신의 관할해역) 역시 일본 수군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였다.⁴³⁾ 이와 같은 見解變化는 李舜臣의 軍事的 支援으로 元均이 구원된 것이 아니라, 元均 管轄地가 恢復됨으로써 李舜臣의 全羅左道가 적의 침략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海戰 勝利에 대한 中央官僚들의 價値變化는 그들 자신이 법제화했던 야전 지휘관 임의로 他道에 軍事支援을 할 수 없다는 不必籍他助之法을 그들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李雲龍과 李英男 등 元均의 부하 장수들이 이순신을 협박하자, 이순신이 마지못해 출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⁴⁴⁾ 이순신을 겁장으로 비하시키면서 원균을 海戰勝利의 주역으로 부상시키기 시작했다.

단지 비변사만 李舜臣이 倭變 初에 兵船을 모아 적의 진로를 차단하고, 적의 머리를 베어 바친 功勞가 많았다고 이순신의 군공을 인정하면서, 두 사람의 화해를 건의했다.”⁴⁵⁾ 이는 초기해전 승리의 主體者는 李舜臣이며, 원균은 協力者라고 평가한 것이다. 또한 비변사는 경상우병사 원균이 해전에서 상관인 이순신의 지휘를 따르지 않은 軍律違反 사실을 지적하였다.⁴⁶⁾ 비변사의 비판이 있자, 선조는 원균을 충청병사로 전보조치 했다. 그리고 원균 후임에 裴楔을 임명하여 양자의 군공논쟁을 종식시키려 했다.

되었습니다.”

43) 위의 책, 선조 27년 11월 丙戌.

정운이 이순신에게 “이순신이 경상도를 출전하지 않으면 전라도도 필시 수습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44) 위와 같음.

45) 『宣祖實錄』, 선조 27년 11월 壬寅.

46) 위와 같음.

4. 統制使 交替와 漆川梁 敗戰에 대한 法 適用

원균의 충청병사 전보 조치⁴⁷⁾는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정 3품 수사에서 종2품 병사로 승진 발령이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問責 人事는 아니었다. 반면 이순신의 경우 거제도 탈환작전에서 관옥선 1척과 협선 3척이 坐礁되고 승조원 전원이 沒殺되었다는 보고 지연이 君主를 속 이려 했다는 범죄행위로 확대 해석되기 시작했다.⁴⁸⁾ 이러한 여론은 임란 초기 원균의 지원요청에 이순신이 즉시 응하지 못한 것은 任意他道 支援 禁止法 때문이 아니라 戰鬥忌避 意圖였다고 평가하는 것이었다. 이는 임진년 해전승리의 주체가 이순신이 아니라, 원균이라는 의미였다.

당시 여론의 추이는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 좌의정 金應南은 이순신을 조용하고 중도에 맞는 인물이라고 하였지만 거제도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은 元均이라고 평가했다.⁴⁹⁾

선조가 일본군이 거제도에서 철수할 경우 閑山島를 지켜야 할 것인가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尹根壽는 한산도를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고, 김응남은 한산도에서 거제도로 나아가서 수군과 군선으로 적의 糧道를 끊으면 일본군이 감히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근수의 '한산도 방어의 불필요성'과 김응남의 '공세적 방어' 주장은 모두 이순신의 수동적 방어작전을 비판하고 원균의 공세적 작전을 지지한 것이었다. 조정의 이 같은 견해는 壬辰年(1592) 이순신과 원균이 合同作戰으로 이룬 軍功이 이순신에게 편중되었기 때문에 원균이 不滿을 갖게

47) 위와 같은 책, 선조 28년 3월 戊寅.

원균의 충청병사 보임 일자는 정확치 않다. 선조실록 선조 28년 3월 5일 기록 중 “지금 새 수사가 취임하여 흠어진 군졸을 징집한 다음 한산도로 보내겠다”는 기사가 있다.

48) 위와 같음.

49) 위와 같음.

되었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조정의 분위기는 1596년부터의 군공평가 기준이 戰鬥力 中心이 아니라 管轄地 中心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管轄地 中心의 軍功平價는 원군의 持論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統制使의 책임자는 원군이어야 한다는 조정의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이때 도체찰 李元翼이 일본군의 동향과 민심을 보고하기 위해 상경했다. 선조는 3차례나 이원익을 접견했다. 1차 접견에서 선조는 이순신의 인간됨을 질문했다. 이원익은 많은 장수들 중 이순신이 가장 능력 있는 자이며, 전쟁을 하는 동안 태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⁵⁰⁾

2차 접견은 보름이 지난 후 이루어졌다. 선조는 원군의 인물됨을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려했다.⁵¹⁾ 선조는 원군에 대해서는 매사에 정성스럽고 용맹한 장수라고 칭찬했다. 반면 이원익은 원군이 戰功이 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다면 결단코 기용해서는 안 될 인물임으로, 전투가 임박했을 때 돌격 장수로 기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때 선조는 武人에게 어찌 완전하기를 바랄 수 있는가?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3차 접견은 1596년 11월 7일 이루어졌다. 이 접견은 일본군의 재침 첩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어전회의를 겸했다. 회의 주제는 加藤清正를 해상에서 저지할 수 있는 수군통제사로 책임자가 누구냐는 것이었다.

어전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은 원군 지지와 이순신 지지로 나뉘고 양자 화해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원군 지지자는 宣祖, 李山海, 尹斗壽, 李德悅이었고, 이순신을 지지한 사람은 柳成龍, 李元翼이었으며, 화해론자는 鄭琢이었다.⁵²⁾

이와 같이 조정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것은 참석자들이 國益보다 黨利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⁵³⁾ 원군을 지지한 사람들은 西人과 北人이었으며,

50) 위와 같은 책, 선조 29년 10월 戊辰.

51) 위와 같은 책, 선조 29년 10월 甲申.

52) 위와 같음.

53) 『燃黎室記述』 17권, 정유년 3월.

“서인은 원군을 두둔하고 동인은 이순신을 두둔하여 서로 공격하면서 국사는 마음에 두

이순신을 지지한 사람들은 南人이었다.⁵⁴⁾ 그 결과 일본군의 재침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실질적 防衛戰略을 논의하지 못하고 黨利에 따른 인물평가로 회의를 끝냈다. 이 과정에서 이순신이 이룩한 해전승리의 戰術的 價値가 무시된 반면, 전쟁초기에 自衛力을 喪失한 元均이 軍功 不公正을 제기하여 능력 있는 수군장수로 輿論을 전환시켰다.

이점에 대해 이원익은 원균이 접전지역을 이탈해 이순신에게 군사력지원을 요청했다는 점을 강조한 후, 이순신은 법에 따라 출전 승인을 받고 출전하여 전란 이래 제일의 功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왕인 선조가 원균을 두둔하고 중앙관료 다수가 원균의 管轄權 主張에 동조하는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체찰사의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 다시 전투지역으로 내려갔다.

이순신의 유일한 변호자 이원익이 없는 상태에서 선조는 일본군 재침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 그 자리에서 해평부원군 尹根壽는 임진년 해전에서 원균이 가장 우직하고 용감히 싸워 군공이 가장 많고, 수전을 잘하는 장수임으로 다시 통제사로 삼아 수군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⁵⁵⁾ 이렇게 원균이 통제사로 적임자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을 때, 이순신에게 불행한 사건이 겹쳐 일어났다.

첫째는 釜山倭營燒火 虛僞報告 사건이다. 「부산왜영소화 허위보고사건」이란 정규전을 할 수 없던 조선 조정이 왜군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도체찰사 李元翼이 주도하여 부산 왜영을 燒火시킨 것을 李舜臣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야기된 사건이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도체찰사 이원익은 군관 鄭希玄에게 부산 왜영을 燒火하도록 밀명을 내렸다. 정희현은 부산수군 許守石을 시켜 부산 왜영을 燒火하는데 성공했다. 일본군 가옥 1천 호와 화약창고, 군기와 잡물, 그리고 군량미 2만

지 않았다.”

54) 『연려실기술』 17권.

55) 『宣祖實錄』, 선조 29년 11월 辛丑.

6,000여 석을 일시에 태워 버린 쾌거였다.⁵⁶⁾ 마침 불길이 왜영에 번질 때, 이순신이 부산의 적정을 파악하기 위해 보낸 거제 현령 安衛, 군관급제 金蘭瑞, 군관 辛鳴鶴이 부산 왜영의 燒失을 목격하고, 밀모하여 자기들이 부산 왜영을 燒火시켰다고 이순신에게 보고했다. 이때 경상수영의 都訓導 金得이 부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부산 왜영이 불타오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여 안위 등의 보고가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목격자까지 있었으므로 이순신은 그의 부하들의 말만 믿고 부산왜영소화사건은 자신이 주관해 성공했다고 보고했다.⁵⁷⁾ 조정은 전쟁이 담보상태에 있을 때 이순신의 장계를 勝戰으로 간주하여 참가자에 대한 표창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조좌랑 金熹國이 ‘부산왜영소화사건은 도체찰사 이원익이 계획하고 집행한 것으로 이순신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書啓를 올림으로써 이순신의 보고가 허위로 밝혀지게 되었다.⁵⁸⁾

둘째는 要時羅 反奸計 事件이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본 장수 小西行長이 要時羅를 경상우병사 金應瑞에게 보내 “加藤清正이 바다를 건너 올 것인데, 수군을 시켜 그를 바다에서 잡도록 하라”는 첩보를 주었다. 김응서는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였고, 선조는 그 첩보가 신빙성이 있다는 뜻을 유성룡에게 전달했다. 유성룡은 선조의 뜻을 이순신에게 전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적 첩자의 말을 믿을 수 없고, 바다길이 험난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군선을 이끌고 출전하면 군사작전이 노출되고, 적은 군선으로 출전하게 되면 협공당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출전하지 않았다.⁵⁹⁾ 이순신이 출전하지 못한 데는 수군에 내재한 고충 때문이었다. 그 고충이란 군량, 전투원 그리고 군선의 부족이었다. 전투력이 열세한 상태에서 믿을 수 없는 정보로 광역해역을 경비해 전투력을 소모하는 것보다 견내량 협수로를 차단

56) 앞과 같은 책, 선조 30년 1월 癸巳.

57) 위와 같은 책, 선조 30년 1월 壬辰.

58) 위와 같은 책, 선조 30년 1월 癸巳.

59) 위와 같은 책, 선조 30년 1월 癸巳, 선조 30년 1월 乙未, 『燃藜室記述』 17권, 「정유년 왜가 두 번째 나온다」.

하여 일본 수군의 西進을 저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⁶⁰⁾ 이때 충청병사에서 전라병사로 영진된 원균은 수군을 출전시켜 해로를 차단하면 加藤清正의 도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계를 올렸다. 이것은 이순신을 불신하고 있던 선조가 원균을 다시 등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⁶¹⁾

한편, 선조가 이순신을 불신하고 있을 때 이증첩자 要時羅는 김응서에게 加藤清正이 이미 다대포에 상륙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그의 渡海에 관한 정보를 주었지만 이순신이 加藤清正을 해상에서 체포하지 않았다는 서신을 보내왔다.⁶²⁾ 같은 시기에 경상도 체진위무사 黃愼은 宋忠仁의 말을 인용하여 加藤清正이 150여 척의 군선을 이끌고 1월 13일 다대포에 상륙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그의 보고 내용 중에는 “조선 사람들이 하는 일은 모두 그렇게 기회를 잃으니 애석하다”는 왜장의 조롱까지 첨부하여 이순신을 비난했다.⁶³⁾

釜山倭營燒火事件 虛僞報告와 加藤清正의 상륙소식은 이순신이 통제사로 부적인 인물로 지목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전 현풍현감 朴愷은 이순신을 참형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고, 사성 南以信은 한산도에 대한 監査 結果報告에서 加藤清正이 7일간이나 해상에 머물렀을 때, 수군이 출전했다면 그를 체포할 수 있었는데도, 이순신이 머뭇거리 기회를 잃었다고 비판했다.⁶⁴⁾ 사흘 후 개최된 어전회의서 선조는 이순신을 처벌하고 원균을 등용할 결심을 굳혔음을 다음 사례로 알 수 있다.

“癸巳年(1593) 이래 사람들이 이순신의 일은 모두 거짓이라고 한다. ... 중국장수들이 못하는 것 없이 조정을 속이고 있는데, 이런 습성을 우리나라

60) 장학근, 「壬亂期 朝鮮朝廷의 水軍에 대한 期待와 運用策」,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해군본부 군사연구실, 1993), 78쪽.

61) 『宣祖實錄』, 선조 30년 1월 癸丑.

62) 『燃藜室記述』, 갑오년 9월.

63) 『宣祖實錄』, 선조 30년 1월 甲寅.

64) 『燃藜室記述』, 갑오년 9월.

라 사람들도 모두 답습하고 있다. 이순신이 부산 倭營을 불태웠다고 조정을 속여 보고했는데, 영상(유성룡)이 이 자리에 있지만 반드시 그랬을 리 없다. 지금 비록 그의 손으로 淸正의 목을 베어 오더라도 결코 그 죄는 용서해 줄 수 없다. … 이순신은 무장으로서 어찌 조정을 경멸하는 마음을 갖는가? 우상(이원익)이 내려갈 때 평시에는 원균을 장수로 삼아선 안 되고 전시에 써야 한다고 했다… 이제 원균을 등용해 수군의 선봉으로 삼고자 한다.”⁶⁵⁾

국왕인 선조가 이순신을 비난하고 원균을 등용할 의사를 확고히 하자, 영중추부사 李山海는 임진년 水戰의 군공을 이순신이 독차지 하자, 원균이 원망하게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원균이 제기한 軍功의 不公正 주장을 합리화 했다. 그는 이순신을 전라·충청 통제사로 삼고, 원균을 경상통제사로 삼자고 건의하여 통제사 교체를 가시화했다.⁶⁶⁾ 조정의 여론이 통제사 교체로 쏠리자, 선조는 원균을 경상우도 수사 겸 경상도 통제사로 임명함으로써, 이순신을 해임시키는 수순을 밟았다.⁶⁷⁾ 국왕의 통제사 교체의지를 확인한 사헌부는 초전 이후 軍功의 不在, 加藤淸正의 不逮捕, 國恩의 背反 등으로 이순신을 탄핵했다.⁶⁸⁾ 이순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대된 후, 선조는 우부승지 金弘微에게 비망기를 내려 이순신을 구속하도록 했다. 비망기에 담긴 이순신의 죄목은 다음과 같다.

“이순신이 조정을 欺罔한 것은 임금을 無視한 罪이고, 적을 놓아 주고 공격하지 않은 것은 나라를 저버린 죄이며, 심지어 남의 공을 가로채고 남을 誣陷하며 한 없이 방자한 것은 忌憚치 않는 죄이다. 이렇게 허다한 죄를 범한 것은 법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니 법률을 상고하여 죽여 마땅하다.

65) 『宣祖實錄』, 선조 30년 1월 27일.

66) 위와 같음.

67) 위의 책, 선조 30년 1월 己未.

68) 위의 책, 선조 30년 2월 乙丑.

신하로서 임금을 속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금 형벌을 끝까지 시행하여 사실을 확인하려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신들에게 하문하라.”⁶⁹⁾

이순신에게 적용된 세 가지 죄목은 無君之罪(임금을 없신여긴 죄)·負國之罪(나라를 등진 죄)·陷人於功(남을 포함한 죄)였다. 문제는 극형을 전제로 했던 이순신의 죄목은 命令 不服從 罪이거나 敗戰之將罪 등과 같은 軍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의 적용이었다. 그것은 군법을 이순신에게 적용할 경우, 원군의 處罰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군법 대신 일반 형법을 적용하여 이순신을 제거하고 원군을 등용하기 위한 묘수를 발휘한 것이었다. 그 묘수는 이산해(북인)와 윤두수(서인)가 연합하여 유성룡(동인)의 입지를 약화하려는 계략에서 立案된 것이기도 했다.⁷⁰⁾ 이순신은 1597년 2월 한산도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어 3월 4일 전옥서에 수감되었다.

이순신이 투옥된 후 倭將 小西行長은 要時羅를 다시 경상우병사 金應瑞에게 보내 倭船이 더 나올 것이니 조선 수군이 해상에서 맞아 치라는 정보를 제공했다.⁷¹⁾ 그것은 조선을 재침하는데 유일한 걸림돌인 조선수군을 제거하기 위한 모략이었다.

김응서는 要時羅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비변사와 도원수 權慄에게 전했다. 비변사와 권율은 그 정보에 따라 일본군 후속부대를 해상에서 차단하기 위해 통제사 원군에게 가용한 모든 군선을 이끌고 출전할 것을 강요했다.⁷²⁾ 그러나 원군은 그 명령에 대해 육군이 먼저 安骨浦의 일본군영을 공격해 海路가 안전하게 되면 출전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출전을 거부했다.⁷³⁾ 원군이 출전에 응하지 않자 도원수 권율은 이순신이 같은 이유로 출전하지

69) 위의 책, 선조 30년 3월 癸卯.

70) 『宣祖實錄』, 선조 31년 4월 丙辰.

71) 『懲誌錄』 권2, 「李舜臣의 下獄과 水軍의 覆沒」; 『宣祖實錄』, 선조 30년 6월 癸酉.

72) 『宣祖實錄』, 선조 30년 6월 乙酉.

73) 위의 책, 선조 30년 6월 丁亥.

않았다가 죄를 입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원군의 출전을 독촉했다.⁷⁴⁾ 강압적 출전 독촉에 불만을 갖게 된 원군은 한산도 留防軍까지 인솔하고 부산 해역으로 출전했다. 원군은 부산에서 전세가 불리하자 함대를 칠천량으로 후퇴시켰지만 왜군의 기습을 받아 패전했다. 조선 수군의 패전 소식은 선전관 金軾에 의해 조정에 보고되었다.⁷⁵⁾

수군의 패전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전회의가 개최되었다. 어전회의에서 선조는 방어대책 수립보다 敗戰將帥 元均을 두둔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⁷⁶⁾

첫째, 水軍의 大敗는 天運이니 어찌할 수 없다. 원군이 죽었더라도 어찌 사람이 없겠는가? 각도의 군선을 수습하여 방비해야 한다. 둘째, 수군이 한산도를 고수하면서 바다를 차단했어야 했는데, 권율이 원군을 독촉해 패배를 초래했다. 이는 人災가 아니라 天災이다. 셋째, 군사력이 약한 수군이 한산도로 후퇴했다면 편리했을 것인데, 한산도 요새를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된 계책이다. 원군이 절영도 앞바다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했는데, 출전을 강요해 이 지경이 되었다. 넷째, 平秀吉(豐臣秀吉)이 먼저 조선 수군을 격파한 다음 명나라 육군을 제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겠다. 다섯째, 지난 일을 논의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통제사를 선출해 남은 배를 수습하게 하고, 도독부에 알려 중국조정에 奏聞해야 한다. 여섯째, 원군은 처음부터 출전하려 하지 않았다. 裴楔도 출전명령에 불복하여 군법으로 죽음을 당할지언정 어찌 군졸들을 死地로 들여 보내겠는가라고 南以恭(이원익의

74) 『懲毖錄』 권2, 「李舜臣의 下獄과 水軍의 覆沒」.

“원군은 늘 ‘이순신은 저군을 보고 진격하지 않는다’고 이순신을 모함하였는데, 그가 이순신을 대신하여 통제사가 되었으니, 이제와 그 형세가 어려운 줄 알았으나 핑계 삼을 것이 없어 모든 함선을 이끌고 출전할 수밖에 없었다.”

『燃藜室記述』 권17, 정유년 3월.

“권율이 昆陽에 도착해, 원군이 적군을 두려워하여 출전하지 않자, 불리다 곤장을 쳤다. 그날 밤 원군이 분함을 품고 와 한산도 경계병까지 거느리고 부산으로 출전했다.”

75) 위의 책, 선조 30년 7월 辛亥.

76) 『宣祖實錄』, 선조 30년 7월 辛亥.

중사관)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번 일은 도원수(권율)가 원균을 독촉하여 출진시켰기 때문에 패한 것이다.

선조가 반복하여 강조한 것은 패전의 책임은 원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전을 강요한 권율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선조의 不公正한 法 適用에 대해 도체찰사 李元翼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임진난 이후 폐전하여 흩어진 장수들을 한 사람도 군법으로 다스리지 않은 것이 관습처럼 되었습니다. 이번 수군 함대는 처음부터 적과 싸우다 파멸된 것이 아니라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싸우다 전사한 사람은 조방장 金澆 뿐입니다. 많은 장수를 모두 군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 해도 元均은 主將이었으니 군사를 상실한 軍律로 처단해야 합니다.”⁷⁷⁾

이원익은 전쟁발발 이후 敗戰將帥를 군법으로 엄히 다스리지 않아 칠천량 패전이 있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원균이 戰鬥中 敗戰한 것이 아니라, 도주하다 패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원균은 指揮能力이 없는 장수라는 그의 이론을 강조한 것이며, 선조의 잘못된 法 意識을 책망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선조는 원균을 패전 장수로 處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선조의 意中을 간파한 비변사는 원균의 生死與否와 所在가 파악된 후, 처벌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 13일 후 사헌부는 패전한 장수들을 軍法으로 처벌하지 않아 民心이 통분하고 있다고 하여 강력한 군법 시행을 촉구했다.⁷⁸⁾ 그러나 사헌부는 主將을 救援하지 않고 逃走한 將帥 처벌에 역점을 둬으로써, 敗戰의 主將인 元均의 처벌을 제외시키려 했다. 그것은 국왕인 선조의 의중을 반하지 않으려 한 술책이었다.

元均에 대한 處罰論이 다시 제기된 것은 1598년 4월 2일이었다. 그것은

77) 위와 같은 책, 선조 30년 8월 己亥

78) 위와 같은 책, 선조 30년 8월 丙辰.

宣祖가 漆川梁 해전의 功과 罪를 법대로 시행하지 못해 법의 위엄과 교훈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에 의한 것이었다.⁷⁹⁾ 비변사는 元均이 主將으로 節制를 제대로 못해 적에게 불의의 기습을 받아 전 수군을 陷沒시킨 잘못을 들어 斬刑을 건의했다.⁸⁰⁾ 원균의 처벌여론이 일자 선조는 원균 한 사람에게만 패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분노했다. 국왕이 원균의 처벌을 반대함으로써 원균의 처벌 여론은 진정되었다.

그러나 선조실록에 기재된 史論을 통해 眞實이 무엇인가를 성찰할 수 있다.

“閑山(칠천량 해전)의 패배에 대하여 元均은 磔刑(기둥에 묶어 놓고 창으로 찢러 죽이는 형벌)을 받아야 하고 다른 將卒들은 죄가 없다. 왜냐하면 元均이라는 자는 원래 거칠고 무지한 위인으로 당초 李舜臣과 軍功논쟁을 하면서 백방으로 상대를 모함해 결국 이순신을 몰아내고 그 자신이 통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길으로는 일격에 적을 섬멸할 듯 큰 소리를 쳤으나, 지혜가 고갈되어 군사가 패하자 배를 버리고 육지에 올라가 사졸들이 모두 魚肉이 되게 했다. 그때의 죄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칠천량에서 한 번 패하여 호남이 함몰되자 나랏일이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 시사를 목도하건대 가슴이 찢어지고 뼈가 녹아내리려 한다.”⁸¹⁾

5. 元均의 功臣策定 過程과 錄勳審査에 대한 評價

칠천량해전에서 통제사 원균이 전사하자 조정은 이순신을 통제사에 재임

79) 앞과 같은 책, 선조 31년 4월 丙辰.

80) 위와 같음.

81) 위의 책, 선조 31년 4월 丙辰.

명했다. 1597년 8월 19일 통제사에 재임명된 이순신은 會寧浦에서 裴榘로부터 8척,⁸²⁾ 녹도에서 1척, 인근 연해에서 4척 등 판옥선 13척과 哨探船 32척을 수습했다.⁸³⁾ 1597년 9월 16일 이순신은 13척의 판옥선으로 명량해협을 통해 西北上하려는 일본군선 133척과 맞서 싸워 승리했다.⁸⁴⁾ 명량해협의 승리로 조선 수군은 칠천량에서 와해되었던 수군력을 재건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水陸並進으로 북상하려던 일본군의 전술을 무력화시키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후 이순신은 고하도에서 고금도로 군영을 옮긴 후 군량의 확보, 군선의 건조, 군관의 선발 등 수군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였다.⁸⁵⁾ 그 결과 수군 병력 8,000여 명, 군량 1만여 석, 군선 40여 척을 건조하는 등 水軍 재건에 박차를 가했다.⁸⁶⁾ 1598년 7월 陳璘이 인솔하는 명 수군 5,000명이 고금도에 도착하여 조선 수군과 연합했다.⁸⁷⁾

1598년 11월로 접어들면서 일본군의 철수준비가 여러 첩보를 통해 확인되고 있었다. 이순신은 陳璘과 연합해 순천 왜교성에 대한 海路封鎖를 단행하여 일본군의 철수를 저지했다. 위기에 직면한 小西行長은 陳璘을 매수하여 통신선 1척을 出營시키는데 성공했다. 왜군의 통신선 탈출 사실을 알게 된 이순신은 적의 주변 援軍이 도착하게 되면 협공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순신은 진린에게 함대를 이동시켜 노량해협을 차단하자고 제의했다. 이순신은 80여 척의 군선을 이끌고 노량해협 우측인 관음포 지역에 포진했으며, 진린은 100여 척의 군선을 이끌고 해협 좌측인 곤양 竹島에 위치했다.

82) 『燃藜室記述』 17권, 「이순신이 진도에서 이기다」.

83) 『宣祖實錄』, 선조 30년 11월 丁酉.

84) 『亂中日記』 1597년 9월 15일.

85) 『懲誌錄』 권2, 「이순신의 재기와 전세의 정비」.

86) 『宣祖實錄』, 선조 31년 2월 丁丑.

87) 『宣祖實錄』, 선조 31년 6월 庚辰; 『燃藜室記述』 17권, 「수륙으로 동정하여 왜적이 철환하다」.

風上에 위치한 朝·明 聯合艦隊는 화공전술로 일본함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수세에 몰린 일본함대는 남해를 돌아 왜교성으로 향하다가 海路를 착각한 일본함대가 관음포 포구내로 들어갔다. 19일 아침 포구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본함대는 사력을 다해 포구를 탈출하려 했다.

이순신 함대가 일본 군선 200여 척을 격침시켜 승세를 잡기 시작했을 때, 이순신이 적탄에 맞아 순국하게 되었다.⁸⁸⁾ 선조실록에 사관이 기록한 노량해전과 이순신의 순국직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밤새도록 노를 저어 나아가 날이 밝기 전에 노량에 도착하니, 많은 왜적이 도착해 있었다. 불의에 진격하여 혈전하던 중 이순신이 몸소 왜적에게 활을 쏘다가 왜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아 선상에 쓰러졌다.⁸⁹⁾

노량에서 조명 연합함대가 일본군선 200여 척을 격침시켜 해전의 勝勢를 잡기 시작했을 때, 小西行長은 남해 섬 서쪽연안을 돌아 부산으로 도주했다. 그것을 확인한 일본 증원함대는 전투를 포기하고 부산으로 퇴각, 小西行長을 대동하고 일본으로 도주했다. 일본군이 바다를 건너 도주하고 이순신이 선상에서 순국함으로써 지루했던 7년간 전쟁은 끝났다. 전쟁이 끝난 지 3년이 되던 해에 사헌부는 軍功者를 錄勳할 것을 건의했다.

“사변이 일어난 뒤에 武士로서 참전하여 적을 사로잡고 참수한 공을 세운 자가 많습니다. … 만일 국가가 불행하여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가 시석이 쏟아지는 속에서 온 힘을 다해 싸우다 죽으려 하겠습니까? … 상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충절을 존중하시어 특별한 포상의 은총을 베풀고 그 자손을 錄用하여 공로를 잊지 않는 은혜를 크게 보이신다면 한 세상을 격려하고 장래를 권장하는 뜻이 훌륭하다 할 것입니다.”⁹⁰⁾

88) 『懲誌錄』 권2, 戊戌年 10월; 『宣祖實錄』, 선조 31년 11월 戊申.

89) 『宣祖實錄』, 선조 31년 11월 戊申.

사헌부가 군공자의 녹훈을 건의한 목적은 전쟁기간 중 군공 당사자와 그 후손을 표창하기 위한 것이었다.⁹¹⁾ 선조는 그 건의를 수락하면서 扈從, 討逆, 平倭로 錄勳의 범위를 확대 지시했다.⁹²⁾ 그 지시는 겉으로는 포상자를 확대하여 국민정신을 폭넓게 계도하려는 것 같았지만, 내면은 그의 통치적 약점을 은폐하고 집권력을 강화하는 計略이 내재해 있었다. 선조의 통치적 약점이란 백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播遷을 단행했으며, 전쟁 중 국왕의 해외 망명을 의미하는 遼東內附를 단행하려 했다.⁹³⁾ 明의 거부로 遼東內附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御駕가 의주에 머물게 되었을 때 “내가 천자의 나라에서 죽는 것은 괜찮지만 왜적의 손에 죽을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이것은 국난 극복의 대안과 이를 구현할 국왕의 책무를 외면했던 행동이었다. 그것은 선조의 執權유지에 큰 弱點이 되었다. 선조는 錄勳을 이용해 약화된 집권력을 強化하려 했다. 그 방법이 바로 錄勳의 擴大와 力戰勇士의 無功論이었다.

“중국 조정에서 군사를 동원하여 적을 몰아내고 강토를 회복했으니 옛날에 없었던 공적이다. 이것은 호종했던 여러 신하들의 충성 덕분이니, 어찌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인가? 또 힘껏 싸운 장수들에 대해서는 그 공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우리 장졸들은 실제 적을 물리친 공이 없다.”⁹⁴⁾

90) 위와 같은 책, 선조 34년 2월 辛卯.

91) 위와 같은 책, 선조 34년 2월 辛卯

“사변이 일어난 뒤 무사로서 종군하여 적을 사로잡고 참수한 공을 세운 자가 많습니다... 만일 국가가 불행하여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누가 시석이 쏟아지는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싸우다 죽으려 하겠습니까? ...상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충절을 존중하시어 특별히 포상의 은총을 베풀고 아울러 그 자손을 서용하여 그 공로를 잊지 않는 은혜를 크게 보신다면 한 세상을 격려하고 장례를 권장하는 뜻이 훌륭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2) 위와 같은 책, 선조 35년 4월 辛亥.

93) 장학근, 「선조의 집권계략에 나타난 이순신·원균의 평가」, 『임란수군 활동사 연구논총』 (해군 군사연구실, 1993) 333-352쪽.

94) 『宣祖實錄』, 선조 35년 7월 壬午.

녹훈의 본래 취지는 역전용사의 軍功을 포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조는 녹훈의 주역이 되어야 할 力戰勇士를 배제하고 전투와 무관한 扈從者를 포상하려 했다. 선조의 지시에 대하여, 원훈 대신들마저 싸움터에서 자신을 잊고 역전한 사람들이 한들이 아닌데, 그들을 녹훈하지 않는다면 훗날 위급할 때 그들에게 힘을 다해 적을 물리쳐 달라고 요구하기 어렵다고 異意를 제기하기까지 했다.⁹⁵⁾ 그러나 선조는 국토회복의 공은 호종신하이며,⁹⁶⁾ 우리 장졸들은 공이 없다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녹훈의 취지에 반하는 선조의 태도를 비판한 다음 사론을 읊미해 볼 필요가 있다.

“입금이 호종한 공을 錄功하려는 것은 이 무리들을 위해 배려한 것으로 후일 난리가 나면 그들이 달려오기를 바란 것이다.”⁹⁷⁾

‘이 무리’란 파천 당시 선조를 호종했던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선조가 그들을 녹훈하여 전쟁이 재발했을 때,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달려와 선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선조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 비변사와 원훈 대신들은 호종한 것과 역전한 것은 명분과 사실이 다를 뿐만 아니라,⁹⁸⁾ 전쟁 후 武將이 녹훈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⁹⁹⁾고 주장했다. 반대 여론이 강하자 선조는 마지못해 平倭功臣(宣武功臣)의 녹훈을 다음과 같이 허락했다.

“우리나라 장수는 중국 군대의 뒤를 따르거나 혹은 잔적의 머리를 얻었을 뿐 제힘으로 한 명의 적을 베거나 한 곳의 적진을 함락하지 못하였다. 그 중 李舜臣과 元均 두 장수는 바다에서 적군을 섬멸하였고, 權栗은 幸州

95) 앞과 같은 책, 선조 37년 6월 庚子.

96) 위와 같은 책, 선조 37년 6월 庚子.

97) 위와 같은 책, 선조 36년 4월 甲寅.

98) 위와 같은 책, 선조 34년 3월 壬子.

99) 위와 같은 책, 선조 37년 6월 庚子.

에서 승첩을 거두어 약간 나은 편이다.”¹⁰⁰⁾

역전용사의 無功論을 주장했던 선조가 전투에서 李舜臣과 元均(해전), 그리고 權慄의 역할(육전)을 인정한 것은, 군공청 관료들이 扈從功臣을 녹훈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¹⁰¹⁾ 주목되는 것은 녹훈 취지에 맞지 않는 敗戰將帥 원균을 선조가 녹훈하려 한 점이다. 그것은 실추된 民意를 녹훈을 이용하여 은폐하기 위한 선조의 계책이었다. 환국 후, 선조는 국민들이 그를 신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¹⁰²⁾ 그것이 자신의 退位論으로 확대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선조는 전란 중 기만적 禪位論을 20여 회나 제기하여 관료들의 충성도의 厚薄을 측정, 충성도가 낮은 신하들을 처벌함으로써 그의 양위론 제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려고 했다.¹⁰³⁾ 또한 李夢鶴의 난과 같은 民亂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를 확대 처벌하여, 왕권에 반하는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¹⁰⁴⁾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播遷으로 추락된 그의 信望은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 연해지방일망정 ‘백성들의 李舜臣 추모 열기’는 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좌의정 이덕형이 선조에게 沿海民의 이순신 추모광경을 다음과 같이 보고한 바 있다.

“신이 본도(전라도)에 들어가 해변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니, 모두가 이순신을 칭찬하며 한없이 아끼고 추모하였습니다. 승첩 보고가 있던 날 군량을 운반하던 인부들이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듣고 무지한 노약자라 할지라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 조문까지 하였으니, 이처럼 사람을 감복시킬 수 있는 것이 어찌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¹⁰⁵⁾

100) 위와 같은 책, 선조 34년 3월 壬子.

101) 장학근, 『李舜臣·元均의 時代別 輿論』, 『동서사학』 5호, 64-65쪽.

102) 『宣祖修正實錄』, 선조 25년 4월 庚寅.

103) 『宣祖實錄』, 선조 25년 11월 癸丑.

104) 위와 같은 책, 선조 36년 2월 乙亥.

백성의 존경을 받는 이순신의 존재는 신망을 상실한 선조의 自尊心을 상하게 했다. 그러나 이미 戰死한 이순신을 처벌할 수 없었으며, 이순신을 숭배하는 민심을 적발하여 다스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단지 선조가 할 수 있는 방법이란 이순신에게 쏠린 민심을 稀釋시킬 方法을 강구하는 것뿐이었다. 선조는 錄勳審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첫째, 녹훈 결정에 勝敗 不參酌이었다. 선조는 도체찰사 이덕형과 국방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균을 다음과 같이 칭찬한 바 있다.

“전쟁영웅은 勝敗만 갖고 논할 수 없다. … 원균은 임진년에 이순신과 마음을 합하여 적을 칠 때 반드시 앞장섰으니, 그가 용감히 싸웠음을 알 수 있다. 閑山 싸움(칠천량해전)에서 패전한 것으로 그에게 모든 허물을 돌리지만,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조정이 그를 출전하도록 재촉했기 때문이다.”¹⁰⁶⁾

‘영웅은 승패를 갖고 논할 수 없다’는 선조의 발언은 戰勝者만 녹훈한다는 군공청의 취지를 무시하고 자신이 녹훈 서열을 결정하겠다는 의사 표시였다.

실제 녹훈서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군공청이 “원균은 당초 군사가 없는 장수로 해전에 참여하였고, 뒤에는 주사를 패전시킨 과실이 있으니, 이순신·권율과는 같은 등급으로 할 수 없다”¹⁰⁷⁾는 이유로 원균을 2등 공신에 녹훈했다. 그러자 선조는 원균이 2등 공신이 된 것에 불만을 표시하면서¹⁰⁸⁾ 이순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순신은 당초 왜적을 쳐부수었을 때 통제사를 제수하고 관품도 정헌대

105) 위와 같은 책, 선조 31년 12월 戊午.

106) 위와 같은 책, 선조 34년 1월 丙辰.

107) 위와 같음.

108) 위와 같은 책, 선조 36년 6월 辛亥.

부에 이르렀으며, 그가 죽은 뒤에는 정승으로 증직했다. … (이순신이 승전했을 때) 누구의 머리를 베고 어떤 적을 몇 명 죽였다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본 것인가? … 설사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하여도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적을 사살했다는 수와 침략한 왜적의 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의 군사는 다 없어졌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¹⁰⁹⁾

선조가 수군을 敗沒시킨 원군을 두둔하고, 해전에서 승리한 이순신을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세 가지 요인 때문이었다. 첫째, 이순신에 대한 국민적 신망이 국왕을 능가했다. 둘째, 전쟁이 재발하여 선조가 파천을 하게 될 때 이순신과 같은 智將보다 원군 같은 勇將이 필요하다. 셋째, 윤두수·윤근수 형제가 주도하는 서인들과 이산해가 주도하는 북인들이 유성룡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면서 유성룡이 천거한 이순신을 비난하고 원군의 공적을 확대했다.¹¹⁰⁾

이러한 분위기가 군공평가에 반영되었음을 군공청 관료들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증명되었다.

“원군은 당초 軍事力 없는 장수로서 해전에 참여하였고, 뒤에는 舟師를 패물시킨 과실이 있었으니, 이순신, 권율과 같은 등급으로 할 수 없어 2등에 녹훈했던 것인데, 방금 성상의 분부를 받들어 1등으로 하겠습니다.”¹¹¹⁾

군공청이 원군을 2등 공신에서 1등 공신으로 올려 추서하겠다고 약속했

109) 위와 같은 책, 선조 36년 4월 丁未.

110) 『懲忿錄』 권2, 「이순신의 下獄과 水軍의 覆沒」

『宣祖實錄』, 선조 31년 4월 丙辰

“비변사가 아뢰기를 ‘원군이 주장으로 절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적들로 하여금 불의에 기습을 감행하도록 하여 전군이 함몰되게 하였으니 죄는 모두 주장 원군에게 있습니다.’ 하니 선조가 ‘원군 한 사람에게 핑계대지 말라’ 하였다. 이는 李山海와 尹斗壽가 그렇게 말하도록 한 것이다.”

111) 『宣祖實錄』, 선조 36년 6월 辛亥.

음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征倭에 있어서 이순신·원균·권율이 1등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 외는 모두 삭제하라”¹¹²⁾고 지시했다.

선조 34년 3월에 시작되어 선조 37년 10월에 종결된 녹훈 결과는 호성공신 86명, 선무공신 18명, 청난공신 5명이었다. 군공심의 결과가 발표되었을 사관들은 다음과 같은 비판적 史論을 남겨 놓았다.

“임금의 도리로는 논공행상을 하여 공로에 보답하는 특전을 그만둘 수 없었을 것 같다. 그렇다 하여도 호성공신을 80여 명이나 녹훈하였고, 그 가운데 中官이 24명이며, 미천한 僕隸들이 또 20여 명이나 되었으니 외람된 일이 아닌가? 李夢鶴의 난에 이르러서는 州郡에서 불러 모은 도둑 떼에 지나지 않은 것이니 그것을 토평한 것이 어찌 공이 될 수 있겠는가? 丹書鐵券을 만든 것이 어찌 이처럼 구차한데 쓰려고 한 것인가?”¹¹³⁾

6. 結 論

전쟁 초기의 對應態勢는 戰爭局面의 방향과 國運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초기 鎮壓에 失敗했다. 그것은 接戰地域 장수들이 抗戰態勢를 갖추지 않고 병졸보다 앞서 逃走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 침략군은 아무런 抵抗도 받지 않고 부산지역에 橋頭堡를 확보한 후, 破竹之勢로 북상하였다.

의주로 播遷하게 된 선조는 패전·도주한 將帥를 처벌하여 軍律을 정비하려 했다. 그러나 비변사는 장수의 부족, 백의종군 후 군공기회 부여 등의 이유로 패전 장수의 처벌에 反對했다. 특히 원균의 경우 왜군이 그의 관할 지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군선, 군량 그리고 각종 군기(軍器)를 불태우고,

112) 위와 같은 책, 선조 36년 8월 庚子.

113) 위와 같은 책, 선조 37년 6월 甲辰.

곤양 해상으로 도주하여 전라좌수사 이순신에게 救援을 요청했다. 이순신은 1592년 한 해 동안 4차 出戰하여 10회의 海戰에서 모두 勝利했다. 그의 해전승리는 조선 조정에 國土恢復의 希望을 갖게 했으며, 북상하는 일본군에게 軍需品の 부족을 초래하게 하여 北進을 中斷하게 하는 등 전국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戰術的 價値를 인정받아 이순신 중심의 軍功褒賞이 행해지자, 원군은 戰鬥地域 管轄權을 제기하여 軍功의 불공정성을 關係要路에 탄원했다. 이순신과 원군 간의 軍功論爭이 시작되자, 그것은 당쟁과 연계되어 양자가 타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軍功논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이순신에게 불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거제도 奪還戰의 失敗, 부산왜영燒火事件, 가동청정 渡海事件 등으로 인해 이순신은 통제사에 부적합 인물이라는 여론이 조정에 형성되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3개의 罪를 적용하여 하옥하고, 그를 극형에 처하려 했다.

이순신이 하옥되자 일본은 조선 수군을 와해시키기 위해 '일본군 후속부대가 도해 한다'는 情報를 流出시켜 조선 수군을 출동시키게 했다. 도원수 권율은 신임 통제사 원군에게 出戰을 強要하였다. 원군은 수군력을 총동원하여 부산해역으로 출전했다. 그러나 일본함대의 反擊을 받고 칠천량으로 退却했지만, 일본함대의 奇襲을 받아 조선의 수군력은 완전히 瓦解되었다.

도체찰사 이원익과 사헌부는 조선의 유일한 對日 抗戰勢力인 수군을 패몰시킨 원군을 極刑에 처해 해이된 軍律을 바로잡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선조는 서인인 윤두수와 북인인 이산해의 건의에 따라 '패전의 책임을 모두 원군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군을 처벌하지 않았다.

수군통제사에 재임용된 이순신은 잔존 軍선 13척으로 명량해전에서 승리하여 일본의 水陸並進 전략을 挫折시켰다. 이후 진린의 명나라 수군과 합세한 이순신은 小西行長 군이 주둔해 있는 倭橋城을 해상 봉쇄하여 그의 탈주를 차단하였다. 이순신은 일본의 원군함대가 도착하면 협공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陳璘과 함께 함대를 노량해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일본의 증원함대의 西進을 저지하려 했다.

1598년 11월 19일 이순신은 일본함대 500여 척을 관음포로 유인한 후 적선 200여 척을 擊沈시킴으로써 勝勢를 잡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이순신은 적탄에 맞아 船上에서 戰死했다. 조·명 연합함대가 일본 증원함대와 혈투를 벌이고 있을 때, 왜교성의 소서행장은 남해 남단을 돌아 부산으로 퇴각, 일본으로 도주함으로써 전쟁은 끝났다.

종전 3년이 되자 사헌부는 역전용사의 軍功을 表彰하여 그들의 충절을 기리고 백성들에게 爲國獻身의 정신을 고양시키자는 제의를 했다. 선조는 녹훈을 이용하여 약화된 信望을 회복하고, 집권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녹훈의 범위를 扈從, 討逆, 平倭로 확대하였다. 또한 원균을 1등 공신에 책정함으로써 이순신에게 집중된 추모열기를 희석시키려 했다. 녹훈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순신은 서인과 북인들로부터 집중적인 人身攻擊을 받은 반면, 원균은 그들의 비호를 받아 과오가 은폐되고 軍功이 과장되게 되었다. 그 결과 원균은 이순신 권율과 함께 1등 공신에 녹훈되었다.

사론의 지적하듯이 錄勳은 공정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패전 장수에 대해 엄격한 軍法을 適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國民的 信望을 얻지 못한 국왕이 녹훈을 이용하여 執權力을 강화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원고투고일 : 2005. 7. 28, 심사완료일 : 2005. 8. 9)

주제어 : 이순신, 원균, 칠천량해전, 임진왜란, 녹훈

<ABSTRACT>

Application of Law Regarding Commanding Officers
During the *Imjinwaeran* (Japanese Invasion)
— Focus on the *Nokhun* (Posthumous Honor) of
Lee Sun-shin and *Won Kyun* —

Chang, Hak-keon

Law is a standard intended to guide the perceptions of social life and maintain the social order. Whether the law is applied justly or unjustly can result in great changes in the individual's perceptions as well as in the order of a nation.

Imjinwaeran was a historical event which altered the course of Korean history and agitated the spirit of the people. This was due in part to the failure of the king and the leading officials to demonstrate the wisdom or the resolve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and also to their incompetence in responding properly to the military commanders who made and unmade victories.

This paper studies the reasons for the *Nokhun* (Posthumous Honor) of both *Lee Sun-shin* and *Won Kyun*, who represent respectively the successful and the inept commander of that war, in connection with the state of law application and partisan conflict. The purpose is to show that the law, which ought to be fair, can easily become unjust when involved in partisan conflict, and that the national spirit can fall into chaos as a result.

Key Words : *Lee Sun-shin*, *Won Kyun*, *Chilchunryang* Battle, *Imjinwaeran*, *Nokhun*